논어 3편 팔일 10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禘自既灌而往者，吾不欲觀之矣。」

독음 · 자왈 체자기관이왕자 오불욕관지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노나라의 체제사가 첫 강신 절차를 지난 뒤에는 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禘 큰제사 체 / 自 스스로 자

既 이미 기 / 灌 물 댈 관 관 / 而 말이을 이 / 往 갈 왕 왕

者 놈 자 / 吾 자기 오 오 / 不 아닐 불 / 欲 욕심낼 욕 욕

觀 볼 관 관 / 之 갈 지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